



# 청년층 고용률 OECD평균 하회

채원영 연구원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 7월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1%이며 실업률은 7.3%임.

● 반면 전 연령의 고용률은 60.3%, 실업률은 3.1%임.

■ OECD에서 발표한 2012년 1분기 우리나라 청년층(15~24세)의 고용률은 23.9%로 OECD평균 39.1%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용률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14.0%), 헝가리(18.0%), 이탈리아(18.8%), 스페인(19.4%)등 7개<sup>1)</sup> 국가를 제외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반면, 청년층의 실업률은 9.1%로 오스트리아(8.2%), 독일(7.8%), 노르웨이(7.7%), 스위스(8.3%)를 제외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임.

〈표 1〉 주요 OECD 국가의 청년노동시장 지표(2012년 1분기)

(단위: %)

구분	한국	OECD 평균	아이슬란드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고용률	23.9	39.1	61.9	14.0	18.0	18.8	19.4	45.9	37.8	46.9	29.2
실업률	9.1	16.2	17.2	52.3	27.2	34.0	51.0	16.3	9.1	7.8	22.5

자료: OECD.

■ OECD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률이 낮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연령층의 고용률에 비해 청년층의 고용률이 낮다는 점은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시사함.

1) 앞서 언급된 국가 이외에 룩셈부르크(19.6%), 슬로바키아(20.1%), 이스라엘(미집계) 있음.

- 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과 청년실업률이 낮은 것은 대학진학률이 71%로 독일 36%, 일본 48%, 미국 64%<sup>2)</sup>보다 높고 해당 연령에서 군복무자가 많기 때문임.
  - 그러나 OECD 회원 34개국 중 청년층의 고용률이 27위라는 점은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도 청년층 고용률이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 연령층의 고용률이 60.3%인데 반해 청년층 고용률이 42.1%로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청년층의 고용률이 개선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음.

(2012년 7월 고용동향, 통계청, 8/16 외)

---

2) OECD, 2008년 기준.